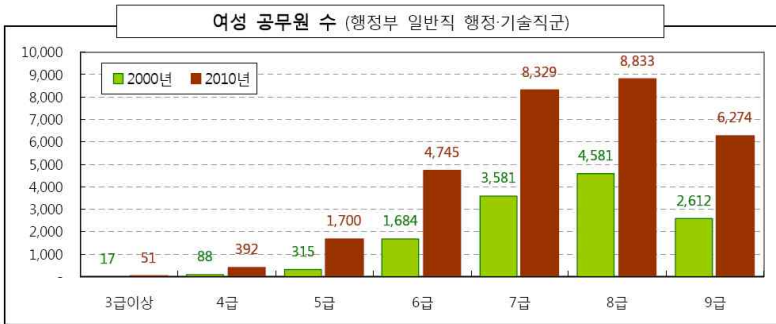


“5급이상 여성공무원, 10년간 5배로 증가”

- 일과 가정 병행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노력 -

1. 행정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2000년 420명에서 2010년 2,143명으로 10년 만에 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직급별로 보면 5급은 315명에서 1,700명으로, 4급은 88명에서 392명으로, 3급 이상은 17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하였다.
- 이 기간 중 행정부 일반직(행정,기술직군) 전체에서 여성은 12,878명에서 30,324명으로 2배 남짓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, 특히 관리직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. 이는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졌음을 의미한다.



2. 이 기간 중 공무원 시험에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.

- 특히 외무고시는 20%에서 60%로 3배가 되었다. 행정고시 행정·공안직은 22.5%에서 47.7%로, 여성 합격자가 적었던 행정고시 기술직도 6.4%에서 22.1%로 크게 증가했다. 7급에서는 16.6%에서 34.2%로,

9급에서는 37.0%에서 41.5%로 늘었다.

- 직렬에 따라 여성이 합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기도 하면서, 1996년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는 이후 양성평등채용제로 바뀌어, 이제는 남성이 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.

3. 여성의 공직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- 출근하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정부청사 어린이집은 2000년 2곳에 불과했으나, 2008년 5곳으로 늘었고, 작년엔 총 10곳이 되었다.
- 육아휴직 대상 범위도 넓어져 2000년에는 자녀 연령이 1세 미만인 경우만 가능했으나, 2007년 만6세 이하로, 작년에는 만8세 이하로 확대되었다.
- 각 부처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고, 탄력근무나 재택근무, 스마트워크 등 유연근무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.

4. 행정안전부 박재민 성과후생관은 “정부는 공직에 들어온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